

## 다문천 입상

다문천은 네 방위를 지키며 악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사천왕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북쪽을 지키는 신입니다. 조용한 분노가 전해져오는 표정은 헤이안 시대(794~1185년) 불상의 특징입니다. 다문천은 소원을 들어주는 보주(여의보주)를 왼손에 들고 중국식 창을 오른손에 들고 있습니다. 보주는 실리적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는 다문천의 능력을 상징하며, 창은 악을 물리치고 불교를 수호하고자 하는 다문천의 강한 의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.

아미타여래상과 마찬가지로 이 상의 몸체는 한 그루의 나무에 상의 주요 부분을 조각해내는 이치보쿠즈쿠리로 만들어져 있어서, 10세기 후반부터 일본에서 널리 이루어졌던 요세기즈쿠리(머리·몸통·손발을 따로 만들었다가 합치는 불상 만들기 방식)로 만들어진 닌나지 절의 다른 불상과는 다릅니다. 이 상은 독립된 개체로서도 무서운 외관을 하고 있는데, 옛날에는 서방정토(극락)의 부처님인 아미타여래의 많은 협시 가운데 하나로서 닌나지 절 본당에 모셔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사천왕은 다문천 외에도 동쪽을 지키는 지국천, 남쪽을 지키는 증장천, 그리고 서쪽을 지키는 광목천이 있는데, 이 상들과 더불어 아미타여래의 협시로서 모셔져 있었을 것입니다.